



보도자료

2012.10.08(월)

국회의원
김영우
(포천시·연천군)

(우) 487-800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8-8호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486-903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302-18 Tel:031-832-8855 / Fax:031-832-8866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27호 Tel:02-784-1521 / Fax:02-788-0141

미래의 통일 세대인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 각 학교별 통일교육 수업시간 천차만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자료를 보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0%에 이르며, 6·25 전쟁에 대해 모른다고 한 비율도 30%에 육박한다. 또한, 학교실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0%를 상회하고 있어 청소년의 통일의식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통일교육시간을 보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수업시간을 시도교육청별로 비교해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내 학교는 고교 3년간 12시간에 불과한 데 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내 학교는 무려 242시간에 달하여 20배의 차이가 났다.

김의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수업시간이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고민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래의 통일 세대인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감있는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에서 통일교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한다”고 질의하였다.

별첨 : 2011년 시도교육청별 통일교육 시수 (고등학교 비교)

2011년 시도교육청별 통일교육 시수 (고등학교 비교)

구분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계
강원도 교육청	30.0	0.0	30.0
경기도 교육청	12.5	6.0	18.5
경상남도 교육청	30.0	6.0	36.0
경상북도 교육청	10.4	6.0	16.4
광주광역시 교육청	107.0	23.0	130.0
대구광역시 교육청	66.0	48.0	114.0
대전광역시 교육청	182.0	60.0	242.0
부산광역시 교육청	5.5	6.0	11.5
서울특별시 교육청	9.0	5.0	14.0
울산광역시 교육청	10.3	6.1	16.4
인천광역시 교육청	14.0	4.0	18.0
전라남도 교육청	7.6	5.1	12.7
전라북도 교육청	27.6	5.1	3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0.1	8.4	18.5
충청남도 교육청	16.0	5.7	21.7
충청북도 교육청	13.3	9.1	22.4

※ 관내 고등학교 10개교씩 샘플링

